

2019 학년도 1 학기 원아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인문교양 : 아시아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16)

주제: 동물 표상(表象) 관점에서 본 일본 문학사에 나타나는 '개구리'

제 16 회 One Asia 재단 국제 세미나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일본어문학과의 사이토 마사시(齋藤正志) 부교수님을 모셨다. 사이토 부교수님은 '문학, 예술, 철학' 등 관점에서 출발하여, '현대 매체의 공간'과 '대중문화 포함'이란 '다문화 현상'을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한다. '분석하는 관점'에서 '비판 이론 입장인 학술적 연구'을 표상 문화론이라고 정의하셨다. 그 다음은 누마노 미츠요시(沼野充義) (2018)의 연구를 소개하셨다. 누마노 미츠요시는 '동물 표상론(critical animal studies)'이 표상 문화론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동물과 인류의 공존, 공감 관계를 다시 검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일방적 시각에서 본 동물'이라는 폄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은 각 분야에서 동물과 인류의 관계를 논할 때 쓰는 연구 방법이다. 유럽과 미국, 한국과 일본 등 지역의 문화 표상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이번 강좌는 과거 연구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았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작은 동물 '개구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구리는 중국 고대 그림과 구리 거울에도 그려져 있다. 그림에 개구리는

달에 사는 동물로 나온다. 구리 거울에는 다른 동식물도 있다. 구리 거울 일부는 일본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개구리를 약자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고대 벼농사의 수호신이기도 하고, 신의 사자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현대 소설에까지 이어진다.

예를 들어, '개구리'는 두 가지 발음이 있는데 일본어 속언(俗言)에서는 [kaeru]로 읽고 가어(歌語)에서는 [kawazu]로 읽는다. 그러나 고대 사전에서는 총 다섯 종류의 개구리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고대 고분(古墳)에 묘사된 달에 있는 개구리는 태양 속에 사는 삼족오와 비교되기도 했다. 일본 최초 <고사기(古事記)>의 신화와 전설에서도 개구리는 자주 등장한다. <고금집(古今集)> 머리말에는 물 속에서 우는 개구리와 나무에서 우는 꾀꼬리가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후선집(後撰集)> 이나 <이세 모노가타리(伊勢物語)> 등의 저서에도 논에서 우는 개구리가 일본 전통 노래를(和歌) 창작할 때에 사용하였다.

여성문학에서도 개구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처첩 사이의 질투 이야기로 유명한 <카게로오 일기(蜻蛉日記)>는 자학적으로 남편이 여성 작가 자신을 개구리로 비유한 이야기를 와카로 만들었다. 중세(일본사)에 <조수인물회도(鳥獸人物戲畫)>에는 개구리가 토끼나 원숭이와 함께 등장했다. 화가가 의인화 수법으로 여러 장면을 그렸다. 마지막에 뱀이 나타나고 의인화된 낙원이 붕괴되었다. 또 <코콘초몬쥬(古今著聞集)>에는 수천 마리의 두꺼비가

등장한다.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어 서로를 잔인하게 살해하며 투쟁을 막기 위해 뱀을 투입한다. 그러나 다른 평화적인 그림 속 세계와 달리 이때 두꺼비들은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 결국 뱀이 물러나는 것이다.

근세(일본사)에 마쓰오 바쇼(松尾芭蕉)가 읊은 하이카이 렌가(俳諧連歌) 중에 “못에 개구리가 뛰는 소리가 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 후로 <고금집(古今集)>이 주는 개구리 울음소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개구리가 뿔 때 물이 튀는 소리로 바뀌었다. 이런 청각 인상(印象)의 표현이 하이카이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문학에서는 와카, 렌가, 그림에서 보여 준 평화적 성격을 가진 개구리와 신화, 전통,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전투적 성격을 가진 개구리도 있지만, 개구리를 집대성한 작품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의 <개구리군 도쿄를 구하다>이다. 이 단편은 1995년 1월에 일어난 한신·아와지 대지진(阪神・淡路大地震)과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을 묘사한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라는 작품에 마지막 두 번째 이야기로 수록되어 있다. 원래는 문예잡지 <신초(新潮)>의 연작인 <지진 그 후(地震之後)>의 마지막 편이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인간처럼 말하는 개구리가 등장하고 도쿄대지진을 위해 나서서 지렁이 괴물과 싸우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담았다. 이 싸움은 ‘상상 속’에서 벌인 것이다. 개구리는 주인공의 도움으로 지진을 막아냈지만 깔끔한 승리는 아니었다. 결국에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야기 내용이 전통 시가(詩歌)가 보여 준 평화적 세계관이 아니었다. 배경이 전설 이야기의 피비린내가 나는 세계관으로 만들었지만 개구리가 지령이를 깔끔하게 이기지 못해서 지진을 대신해 지하철 테러 사건이 일어났다. 인간에게 무시당한 동물 중에서 개구리가 작은 체형이고(무라카미 작품 속에서는 체격이 큰 설정으로 나왔지만), 헤이안 시대(平安時代)에 남성이 여성을 폄하할 때 개구리로 비유했지만, 고대 지식과 중세 폭력을 이겨낸 현대 개구리는 장렬히 희생하는 비극적 영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작은 동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류유용(한국어문학과 졸업)

감수: 김선효(한국어문학과 부교수)